

# “3년전 아내 보내고 3년상 치르는 마음으로 하루 한 작품씩 완성”

광주신세계갤러리 초대전 갖는 '구름 화가' 강은

한지 조각 겹겹이 붙여  
변화무쌍한 공기·구름 표현  
24일까지 240여점 전시  
프랑스·미국 진출도 계획



‘공기와 꿈’

단 한번의 붓질로 공기를 그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물감이 번질수록 점점 구체화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구름 화가’ 강은 작가가 광주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Touch the air”를 주제로 24일까지 초대전을 개최한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표작 ‘공기와 꿈’ 연작을 비롯해 신작 ‘물 위를 굶다’ 등 작품 240여점을 출품한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작가는 “1997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 이후 딱 20년 만에 다시 열게 됐다”며 “예전 구름 연작이 ‘대기의 상남’을 담아 다소 무거웠던 반면 이번 전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물 위를 굶다’ 시리즈는 강 작가에게 큰 의미가 있다. 3년 전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내며 시작한 작업이다.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작품씩 1095점을 그린다는 계획으로, 이번 전시에는 완성작 중 210점을 공개한다.

강 작가는 “유리판 위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종이 밑에 공기방울이 맺히는 걸 보게 됐다”며 “공기를 형상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빛에 물감을 듬뿍 묻혀 화선지에 점이나 획을 천천히 그리며 번지게 하는 담채 기법을 사용한다. 똑같은 붓질이라도 습도, 온도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이 없는 게 특징이다. 광주아트시네비스(봉선37번)에서도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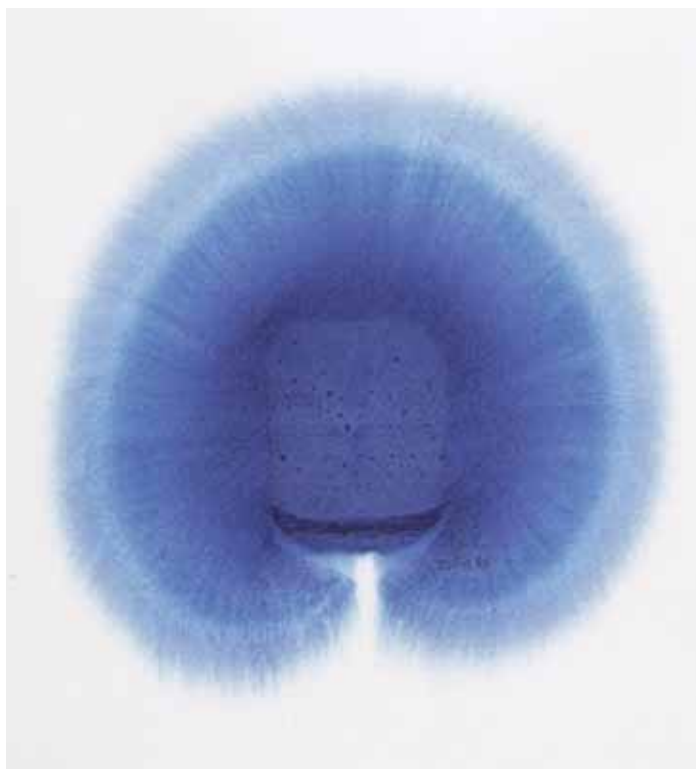
‘공기와 꿈’은 염색한 마름모꼴 한지 조각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겹겹이 붙인 작품이다. 빛을 통과시키는 한지 특성을 활용해 변화무쌍한 공기과 구름을 표현했다. 특히 10년 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공기와 꿈’은 실험·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이다. 원래 강 작가는 1990년대 유화로 그린 구름 시리즈로 인기를 얻었다. 소위 ‘잘 팔리는 작품’이었지만 매일 똑같은 작업에 권태를 느끼고 다른 기법을 시도한다. 어느날 표구집을 지나다 우연히 본 배접(종이를 여러겹 붙임)을 작품에 접목시킨다.

“당시 전속 갤러리가 있었는데 작업 방식을 바꾼다고 하니 반대를 하더군요. 갤러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한동안 작품도 팔리지 않았어요. 콜라주 작업을 한지 10년이 넘고 나이가 5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이제서야 인정을 받고 여유가 생기네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프랑스·미국 화단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20년 전 신세계갤러리 개인전을 계기로 중앙화단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미국에서 갤러리 관계자들이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유행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씨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23회, ‘2016 중한 현대미술 20인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빛, 생명, 물질’(2016), 등 다수 기획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물 위를 굶다’

## 뽕뽕브릿지 ‘A·I·V 레지던스 프로그램’ 결과물

### 9일까지 시이바시 료타·이세현 2인전

공유공간 뽕뽕브릿지(광주시 남구 양동 발산마을)에서 올해 첫 공간공유 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한다.

‘A·I·V(Artist In Vill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 시이바시 료타(Shiibashi Ryota) 작가와 광주 출신 이세현 작가가 ‘어떤, 지점’을 주제로 2인전을 9일까지 연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국적이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진 콜라주(뽕뽕 붙이는 기법) 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활동하는 시이바시 료타는 지난 1월 발산마을에 들어와 약 3개월간 머물렀다. 작가는 무등산, 월

출산, 지리산 등을 오가며 산이 주는 느낌을 사진으로 찍고 해체·재조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다.

시이바시 료타 작품이 산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과 죽음의 공존을 담았다면 이세현 작가는 겹겹이 쌓여가는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장소가 시간 흐름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 표현한다.

이 작가는 돌을 하나의 역사이며 증거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돌을 현장의 사진과 함께 배치한 신작도 출품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세현 작 '경계'



시이바시 료타 작 'the origin'

## 그리워 사무치는 가슴속의 그 노래

### 오늘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강속자오페라라인

가슴 설레는 4월, 노래를 통해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가 7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강속자오페라라인 연주홀에서 제9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그리워 사무치는 가슴속의 그 사람’이 주제다. 새롭게 배우는 가곡은 정성심의 시에 박경규가 곡을 붙인 ‘그대 그리움’이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는 ‘나물캐는 처녀’, ‘사월의 노래’, ‘오라’, ‘동무생각’ 등이다. ‘정다운 노래’에는 ‘망향’, ‘꽃구름 속에’, ‘사랑의 노래’에는 ‘보리밭’, ‘목련화’가 선정됐다.

꿈나무 연주에는 김재희(송원초 4년), 정하윤(만효초 4년) 학생이 나서 각각

‘도토리’의 ‘꿈’, ‘벧노래’를 부른다.

특별출연으로 70세 이상 남성들로 구성된 ‘빛 타운헬스앙상블’(지도 작곡가 김

경양 교수)이 무대에 올라 ‘청산에 살리라’, ‘보리밭’을 연주한다.

이달 초정성악가는 테너 조효중(사진)씨로 ‘첫사랑’, ‘목련화’ 등을 들려준다. 한양대 음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조씨는 현재 호남신학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cafe.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062-600-7135, 010-2665-2328. /김미은기자 mekim@



## 소천아동문학상 본상에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옥애 작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진 출신 동화작가 김옥애(71)씨가 제49회 소천아동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학사가 주관하는 소천아동문학상은 아동문학가 강소천(1915~1963) 선생의 공적과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1965년 제정됐다.

수상작 ‘봉긋방 손님’은 다산 정약옹이 유배 시절 엮은 한자교과서 ‘아학편’을 소재로 한 역사동화다.

가난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봉주라는 소녀와 유배를 온 봉긋방 손님 다산을 중

심으로 이야기기 펼쳐진다. 마을 서당 훈장에게 ‘전지문’을 빌려 공부를 하던 봉주는 책을 잃어버리고 갖은 괴로움에 시달린다. 그때점 봉긋방 손님으로부터 ‘아학편(兒學編)’을 받게 된 봉주는 소원이었던 글공부를 하게 된다.

공교육과 사교육, 사대주의와 민족주의 등 당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치관들을 보여줘 오늘날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강진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 197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우물거를 맨도는 아이들’, 197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너는 어디

로 갔나?’가 당선되며 동화작가 길을 걸었다. 저서로는 동화집 ‘이상한 안경’, ‘손가락 발가락’, ‘은봉어를 보았나?’, 장편동화 ‘들고양이 노이’, ‘별이 된 도깨비 누나’, ‘엄마의 나라’ 등을 펴냈다. 제12회 한국아동문학상(2003), 제5회 광주일보문학상(2009)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신인상은 장편동화 ‘2035년에서 온 미래 고양이 코야’의 작가 서은혜(32)씨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다음달 15일 오후 5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 (062) 222-0072, 226-5800 (단, 카톡상담 후 관람연인 18)

### 아프리카 신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62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7. 4. 19(수) ~ 5. 30(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 미술·작문 부문

2017년 4월 5일(수) ~ 4월 12일(수) | 2017년 5월 15일(월) ~ 5월 17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19일(수) ~ 5월 30일(화)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7년 4월 17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 후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목포시 | 나주시